



이정호 인드라마 생협 상무이사
"공동체 가치는 삶의 큰 대안"
'연기적 삶' 생명 살림 20년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28일) · 주간

제 1002호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룰수 없는 시대 과제”

4대 종교 성직자 17일 기자회견... 입법 추진 촉구

공공영역에서 자행되는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화합·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차별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견지해 온 기독교계에서도 입법추진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4대 종교 단체 대표자들은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종교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제안·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 7월 4일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기독교계의 일명 '땅밟기' 행위 등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웃종교에 대한 폄하로 인한 종교갈등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이 모였다.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후 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 신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박대선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 박승렬 상임의장과 개신교 목사들이 10여명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땅밟기' 등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행위는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함께 참여한 목사들은 최근 부다가야에서 이뤄진 '땅밟기'에 대해 불교계에 사과하는 한편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선교관행을 고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또는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



기자회견 이후 화합의 의미로 참여한 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선 교무, 퇴후 스님, 나승구 신부, 박승렬 상임의장, 정진우 목사

폭력적 선교행위 공감 못해
종교차별금지법 등 제정돼야
국민 60% 法 제정 찬성 입장
“불교계에 상처 입혀 죄송”
회견 참여 목사 사과 표명

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7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을 밝혔다.

이에 2013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에 결국 좌초됐다. 입법 좌초 후 '땅밟기'를 비롯한 이웃종교인간과 비종교인에 대한 선교행위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인도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몽골 등 해

외에서는 '말뚝박기', '찬송가 부르기' 등이 진행됐으며 국내에서는 동화사·봉은사 땅밟기, 화엄사 방화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이날 모인 4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최근 벌어진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자칫 우리사회의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종교차별법 도입과 함께 종교 스스로 상대종교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번한 훼손과 폄하 행위에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7월 17일 전국대처 선교관행을 규탄하며 증오방지법 입법화를 촉구와 이와 관련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불시넷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제는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증오방지법의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학인 스님들 염불 삼매에 빠지다

염불은 불교문화의 꽃이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셔서 상·중·하 근거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설법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수행법이 염불이라고 기술돼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염불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제1회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했다. 전통 염불부터 새로운 창작 염불까지 학인 스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염불을 선보였다. (관련 기사 5면)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관 기자

조계종·선학원 연일 攻防... 내외적 갈등 심화

법인 등록을 놓고 불거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임원진의 법인 사유화 중단과 공개 토론하자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선학원 소속 본원의 중단 등록 허용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선학원이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인 스님과 임원들의 탈종을 통한 선학원 사유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만 스님은 "선학원 측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선학원을 고사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의 어떤 조문과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달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7월중에 중단과 선학원의 현안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니 화답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만 스님은 선학원 사

찰들에 대해 조계종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조계종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본원장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선학원과의 이종 등록 문제가 발생해 법적인 소송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우 스님은 같은 날(15일) 오전에 열린 중앙총무기관 중무원과산하 기관

한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총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학원 본원장스님들과 종도들께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교구본사주지들은 종단의 뜻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현종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정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의 비판에 선학원은 이사장 회를 열고 맞불을 놔다. 선학원 이사

다면 대화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종단의 선학원 분원에 대한 이중 등록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학원 임원진은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학원 사찰에 대해 '이중등록'을 받았다고 선언했으며, 선학원을 탈퇴하려는 본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지원까지 하겠다고 공표했다"면서 "이는 선학원에 대한 종단의 공격은 선학원 해체를 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해체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할애했다.

조계종이 제의한 법인관리법 관련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면서 조계종에 불응했다.

법인 스님은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는 법 제정 전에 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어떤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하려는 모르겠어서 난감하지만, 총무부장 스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 법을 설명하고 객관적 패널이 참여하며 편집없이 공개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회는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회와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회와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회와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회와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중

1002호 INDEX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12 종합
기업 연수 템플스테이 매뉴얼 발표
세월호 100일 아픔 치유 나선다
세계 9점 고려 나전경향 귀환
팔공산 승시, 범불교 행사로 확대

6·7 신행·포교
포교원 지역불교 순회 간담회
불교계 모금 클라우드링 펀딩 인기
24 불교로 읽는 고전
헤르만 헤세의 <깃타트라>

법왕사 27회 백고좌 회향기념 칠성날밤 마가스님 초청 힐링 콘서트

◆ 일시 | 2014년 8월 2일(음, 7월 7일) 밤 7시
◆ 장소 | 법왕사 야외무대 ◆ 문의 | 053)766-3747 증명 : 학송 · 심경스님(중심문도회 회주)

<p>법문</p>  <p>마가스님 자비명상 대표</p>	<p>공연</p>  <p>보현스님 승려가수</p>	<p>사회</p>  <p>우담바라 합창단</p>	<p>사회</p>  <p>해오름 사물단</p>
<p>특별공연</p>  <p>박수경 BBS 라디오 아나운서</p>		<p>특별공연</p>  <p>제주 천제사 한주</p>	

법왕사 제27회 백고좌 법회 회향
혜능스님 보살계 불명 수계법회



8월 20일
혜능스님 전 해인사 올원장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 입재 9월 13일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한주

◆ 회향 12월 21일 지현스님 순천 송광사 올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